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에게 사과”

서거석 교육감, “피해 교원의 상처 치유 기원... 명예 회복에 최선을”

전북교육청, 임용제외교원 피해회복심의위 열고 15명 심의 통과

서거석 교육감이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먼저,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국사건과 관련해 교원임용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시국사건에 연루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교원 임용을 배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0일자로 시행됐다”면서 “늦었지만 특별법 시행을 통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 교원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이날 창조나래 제2회의실에서 ‘임용제외교원 피해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15명을 심의 통과시켰다. 해당 피해 교원의 호봉을 임용제외기간 만큼 재확정하고, 특별법 시행일 7월 10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재확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재지급기간 산입이 가능하도록 근무경력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특별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교원을 위한 지원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모든 피해교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길 기원한다”며 “그분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서울, 충남, 세종, 부산, 광주, 울산, 제주 등 7개 시·도교육감은 사과문을 안내한 바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은 퇴직 1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학폭 예방 위기학생 지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30일 전주대학교 수퍼스타홀에서 도내 각급학교 교장, 교감, 업무담당 교사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인재개발원과 전북경찰청에서 함께 하는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학생생활교육 강화 방안, 생명 지킴이 교육 확대 운영 방안, 사례별 위기학생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최근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사례별 위기 학생 지원 방안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전주부설초 미술국악경연 ‘대상’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천년의 소리’는 최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제15회 미술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초·중·고부 단체부분 대상과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고 29일 전했다.

천년의 소리는 지하철 환승음악으로도 유명한 ‘열씨구야’라는 곡을 연주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주부설초등학교는 2016년 천년의 소리 국악관현악단을 창단, 매주 수요일 방과후 및 월1회 토요일 연습을 했다. 민환성 교장은 “학생들이 국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즐겁게 예술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열정이 이렇듯 멋진 결실로 이어져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나가사키대 협약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8일 나가사키대학교 교육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수 및 연구자 교류 △학생 교류 △공동 연구 및 개발, 학습 및 교육 참여 △기술 지원 △기타 상호 합의된 교육 또는 연구 프로그램 등에 상호협력력을 약속했다. 박병춘 총장은 “나가사키대학교와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교류함으로써 인재 양성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9일 진안문화의집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안제일고 공교육 혁신 선도 지원할 것”

서거석 교육감, 진안 학부모·교직원 대상 ‘공감토크’

서거석 교육감은 29일 진안문화의집에서 지역 학부모와 교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가졌다.

공감토크 참석자들은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 △학생 맞춤형 평가 및

기초학력진단평가 개선 방안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방안 △전북형 늘봄학교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후 진안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최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진안제일고에서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 교육감은 “진안제일고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새로운 모델이 돼 공교육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학급업무플랫폼 ‘서식편의점’ 내달 2일 개통

현장 교원들 참여해 서식 조사·디지털화...추가 서식 지속 개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학급업무플랫폼 ‘서식편의점’을 9월 2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급 학교 교사들이 학급경영과 교육활동을 위해 시간표, 상담자료, 만족도 조사, 생활기록부 작성 등 많은 서식과 문서를 모은 것이다. 특히 단순히 업무 감감을 넘어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수업 중심 학교문

화를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현장 교원으로 구성된 개발진이 학급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조사해 디지털화했으며, 지난 6월 사전점검단을 통해 오류를 찾고 추가 서식을 제안받아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였다. 아동기초조사표, 학생상담종합양식, 정보업무관련대장 등 많이 사용하는 공통서식과 주간·월간계획, 수업변경

원 작성, 특별실 예약 등 취합 및 공유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서식이 개발됐다.

서식편의점은 전북교육청 IBEdu메시저에 연결해 전북 교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서식편의점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급경영이나 업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블레썬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

지역 콘텐츠 기획 전문가 양성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29일 진리관에서 블레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찬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용욱 전주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과 김찬미 블레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콘텐츠 기획 전문가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단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따른 상호 협력 △커리큘럼 설계 및 구성, 전문 강사 추천 등 제한 사항 협력 △전주대 학생 대상 전문가 특강 및 직무 체험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욱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융합인재들이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향후 지역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회성 협업 지원으로 끝나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29일 진리관에서 블레썬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 밝혔다. 이에 김찬미 이사장은 “지역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양 기관이 협약을 맺게 돼 무척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물적·인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주대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을 통해 교육부에서 3년간 약 9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자원의 디지털 혁신과 미래까지 창출에 이바지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고점도성 연료유 제거 발열성 흡유 소재 개발

전북대 남창우·전남대 김형우 교수팀 공동연구



김형우 교수



박영우 석사과정생



강진혁 석사과정생

전북대학교 남창우 교수(공대 탄소융복합재료공학)와 전남대학교 남창우 교수(공대 분자융합소재공학부)가 공동 연구를 통해 고점도성 연료유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발열성 흡유 소재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 성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에너지·환경재료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인 ‘Energy and Environmental Materials (IF=15.0, Top=7.90%)’ 최신호에 게재했다. 논문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박영우 석사과정생과 강진혁 석박사통합과정생이 각각 참여했다. 이날 연구팀에 따르면 흡유제에 일정한 전기 에너지를 줘서 흡유제 표면 온도를 수초 내에 70°C 이상까지 올려 고체화 된 저유황유의 점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기존의 문제를 극복했다. 이렇게 점도를 떨어뜨려 유출된 기름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

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전기전도성 고분자인 폴리피롤(polypyrrole)을 흡유제에 나노입자로 코팅했고, 흡유제의 압축을 변화에 따라서 온도 또한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했다. 이번 연구의 총 책임인 남창우 교수는 “우리 연구팀에서는 환경 문제 해결이나 지속가능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재료와 관련 해 타 학교 및 연구기관과의 우수 연구진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며 “올 10월부터는 미국 내무부(DOD) 안전 및 환경 집행국(BSEE) 산하 기관인 Ohmsett의 제안으로 우리 연구실과 해양방재용 재료 개발과 관련한 국제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전북자치도교육청, 딥페이크 등 관련 교육 실시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 인권 체험형 부스 운영과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48개교 161학급을 지원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각급 학교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66학급을, 디지털 성 문화 관련 문화프로그램(뮤지컬)은 20개교를 각각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인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관련에서도 각급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적극 활용을 줄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 교육 자료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부터 범의 유형 및 관련 법률, 예방 방법, 피해 발생시 대응 방안, 피해 지원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교육 주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청자감수성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노블 엔지니어링·브릭 결합 교육 프로그램

도내 총 1만여명 초등생 대상 9월부터 운영

넥슨재단·미래교육연구원 등, '하이파이브 챌린지' 협약

도내 초등학교 400학급에 브릭 2종 세트·교재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29일 넥슨재단(이사장 김정욱), 컴퓨팅교사협회(ATC, 협회장 강성현)와 ‘하이파이브 챌린지(High-Five Challenge)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넥슨재단이 후원하고 컴퓨팅교사협회가 개발한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책속 등장인물이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블 엔지니어링(Novel Engineering)’과 브릭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의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별 IT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교육청과 협력한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국내 8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은 다섯 번째 지역 교육청과의 협

약이다. 한편 넥슨재단은 오는 9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400학급에 브릭 2종 세트와 노블레슨 교재, 교사 온라인 연수를 지원하고, 총 1만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이파이브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전북 지역의 어린이들이 브릭과 함께 즐겁게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물리적인 한계 없이 누구나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력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익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